

01 교회소식

전 세계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GCN 방송 인기 프로그램 '회상'을 통해 무수한 영혼을 구원한 2000년 이후 이재록 목사 초청 해외 연합대성회를 되돌아본다.

02 생명의 말씀

들뜰도 입하시거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다.

03 기획특집

'토지 무르기 법칙'에 담긴 비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만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 그 섭리를 토지 무르기 법칙을 통해 알아본다.

04 간증

태아의 성별이 바뀌는 재창조 역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태아의 성별이 바뀌는 재창조의 역사를 친히 체험한 가정의 간증을 들어본다.

만민뉴스

제619호 2014년 2월 2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기사와 표적, 권능의 역사 넘쳐난 해외 연합대성회

## GCN 방송 신규 프로그램 '회상' 인기리에 방영돼



에이즈와 각종 풍토병은 물론 앓은뱅이가 일어나 걷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병어리가 말을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 미국 뉴스 전문 채널 CNN에 보도된 '2000 이재록 목사 초청 우간다 연합대성회를 비롯해 파키스탄, 케냐, 필리핀, 러시아, 독일, 페루, 콩고민주공화국, 미국, 이스라엘, 에스토니아 등에서 개최된 연합대성회로 예수가 온 인류의 구세주 되심을 말씀과 권능으로 확증시켰다(사진 우측 하단 '회상' MC 김진홍 장로).

성령의 복음과 권능의 역사를 전 세계에 전하는 GCN 방송(www.gcnetv.org) 신규 프로그램 '회상'이 시청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하나님 권능의 역사가 크고 놀랍게 나타났던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해외 연합대성회 현장을 회고하며, 그날의 감동을 되새기게 한다.

1982년 교회 개척 이후 하나님께서는 세 차례 시련을 통해 세계 선교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하시고 2000년 이후 제2도약기를 맞게 하셨다. 신규 프로그램 '회상' 첫회는 '2000 이재록 목사 초청 우간다 연합대성회'에 동행했던 일꾼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입체적으로 펼쳐졌다.

성회에 앞서 이 목사는 기자회견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지 알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들을 직접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 만진 바 되고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했다.

이 목사의 고백대로 2000년 7월 5일과 6일, '교회 부흥의 비결'을 주제로 열린 '교회 지도자 세미나'에서 수많은 목회자가 변화되고 치료받았다. 7월 7일부터 캄팔라 나키 부보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3일간의 연합대성회에서 선교팀은 성령의 열기 속에 영어와 현지어 찬양, 한국 고전 무용 등의 공연으로 현지인들에게 열렬한 호응을 받았다.

무엇보다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가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가',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말씀과 환자기도를 통해 폭발적인 치료의 역사가 나타났다. 23년 동안 걷지 못하던 여성도가 걷고 뛰는 것을 비롯해 짝

은 다리가 길어지고, 중증 화상, 소아마비, 중풍 등을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귀머거리가 듣고, 병어리가 말하며, 보이지 않던 눈이 보이고, 에이즈와 각종 풍토병 등이 치료돼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성회를 방해했던 사람들은 상상치 못한 하나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자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 이를 통해 우간다 연합대성회는 어떠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만민 제단을 향하신 하나님 섭리는 반드시 이뤄진다는 것을 실감케 했다. 성회 실황이 현지 국영방송 U-TV, C-TV를 통해 첫날부터 중계됐고, 정규 방송 뉴스로도 보도됐다.

또한 미국 뉴스 전문 채널 CNN에서도 취재 및 보도를 했다. 이로써 당시 방송의 영

향력을 실감하게 됐고 전 세계 170여 개국에 프로그램을 송출하는 지금의 GCN 방송을 이루는 토대가 됐다.

2013년 12월 17일 첫 방송된 '회상' 프로그램은 아프리카 54개국 선교의 기반이 된 우간다 연합대성회를 2회에 걸쳐 방영했다. 이어 난공불락의 회교권을 성령의 역사로 들썩이게 했던 파키스탄 연합대성회를 방영한다. 또한 국민 대다수가 힌두교도이며 연인원 300만 명이 운집한 인도 연합대성회, 유럽 영혼들을 각성시킨 독일 연합대성회, 미국 뉴욕 메디슨 스퀘어가든에서 개최된 뉴욕 연합대성회와 유대교 국가 이스라엘에서 예수가 구세주이심을 전 세계에 선포한 이스라엘 연합대성회 등 가슴 벅찬 권능의 현장도 방영할 예정이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 들풀도 입히시거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31~33)

이 세상에서 아무 염려, 근심, 걱정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해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 의식주를 염려하지 않고 진정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 1.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태복음 6장 25~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염려, 근심, 걱정함으로 인생의 갖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또한 자녀가 염

려, 근심, 걱정이 없이 평강 가운데 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전폭적으로 믿고 맡길 때 참된 안식을 누리며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을 수 있다고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키를 한 자도 자라게 할 수 없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더구나 사랑하는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마음껏 공급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르시니 아무 염려 없이 유유히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또한 들의 백합화도 수고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니 아름답게 자라지요.

하물며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생들을 어찌 하나님께서 입히고 먹이며 자라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 2.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하려면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군사적 기반을 든든히 닦아 놓았기 때문에 안정 가운데 나라를 다스려 갈 수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크니라” 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누린 영광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궁중에서 쓰는 모든 기물이 다 정금이었기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않았고, 고급 목재인 백향목도 뽕나무같이 흔하게 사용할 정도였습니다. 솔로몬 왕의 소문을 듣고 찾아 온 스바 여왕은 그 모든 지혜는 물론, 건축한 궁과 상의 식물과 신복들의 좌석과 신하들이 줄지어 선 것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어지럽고 황홀할 정도였습니다(왕상 10:4~5).

이러한 솔로몬 왕의 영광이라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입은 것이 작은 들풀 하나만 같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의식주를 해결하고 자기의

삶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그 밖에 무엇을 얻기 위해 많은 수고가 따릅니다. 그러나 들에 피는 꽃은 수고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자연히 피어나니 솔로몬 왕의 모든 영광으로 견주어도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다 할 수 있습니다(마 6:29).

그래서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리 솔로몬 왕이라 해도 전도서 1장 3절에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고” 했던 것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사실을 깨달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임을 알려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사실을 깨달아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하려면 결코 없어지지 않는 참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 3.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구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어 형제, 부모, 일가 친척을 전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직장이나 일터, 사업터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나라와 민족,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 불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만큼 하나님 나라는 왕성해지므로 영혼 구원을 위해 깨어 기도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의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였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말씀대로 행하는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우치게 됩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알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지요. 이처럼 빛 가운데로 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합니다. 혹 어떤 성도는 “그동안 여러 가지 사명을 맡아 하나님 일을 해왔는데, 이제 성결하기 위해서 잠시 쉬면서 열심히 기도만 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이런 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만 구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의를 병행해서 구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의 일에 열심을 낼 때에 위로부터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의가 이뤄지도록 축복하시며, 하나님 나라도 크게 이루게 역사하시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셨는데도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식주 문제 등 모든 인생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니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됨으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mailto: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교회버스** (교회 차량/ ☎ 02) 818-7391~5)  
주일·공요철차: 각 지역별로 운행(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털단지역(번 출구) / 환승 5536  
7호선 남구로역(번 출구) / 도보 10분

**시내버스**  
디지털단지 오거리 정류장/503,504,571,652,5618,5619,5626,5630,5712,5714  
연희미용고등학교 정류장 (남부순환도로) / 651,5528,504,643,5626  
구로디지털단지역 정류장 (시흥대로)/5,51150,505,507,5531,5534,5601,5616,5617,5620,5621,5623,5624,5625,5627,5633,5713,6512,6635,금천06/환승 5536  
만민중앙교회 앞 정류장/ 5536, 5615(편도), 5616(반대편 편도)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11:00 PM
공요철차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 가나안]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이동부]	3:00 PM
다니엘철차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http://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 ‘토지 무르기 법칙’에 담긴 놀라운 비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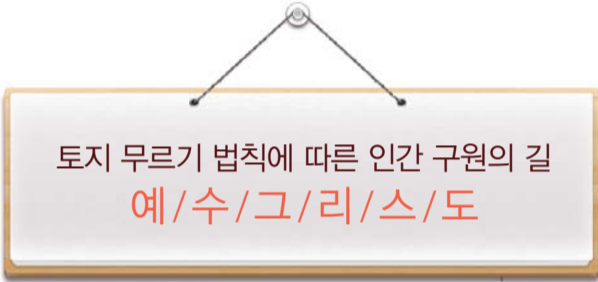
전 세계 56개 언어로 출간된 이재록 목사 저서 **십자가의 도**

첫 사람 아담은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정복하는 권세를 받아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삶을 살았다(창 1:28). 그런데 아담의 아내 하와가 사단의 사주를 받은 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다. 아담도 하와가 건네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말았다.

그 결과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신 대로 범죄한 아담은 하나님께 받은 모든 권세를 원수 마귀에게 빼앗겼고, 아담의 후손인 온 인류는 원수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첫 사람 아담이 흠으로 창조됐기에 결국 범죄할 것을 아시고 만세 전에 십자가의 도, 곧 인간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다. 이것이 바로 토지 무르기 법칙에 담긴 놀라운 비밀이다.

레위기 25장 23절 이하를 보면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하여 토지는 모두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영영히 팔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한다. 또한 만일 가난해 토지를 팔았다 하더라도 합당한 규정에 따라 근족(가까운 친척)이나 본인이 다시 무를 수 있도록 했다. 즉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사람이 영영 팔 수 없는 것처럼, 첫 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받은 모든 권세도 본디 하나님 소유이므로 사람이 영영 팔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토지 무르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나타나면 토지를 물려 주어야 하듯, 원수 마귀도 범죄한 아담으로부터 넘겨받은 권세를 무를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나타나면 모든 권세를 되돌려 주어야만 했다. 이러한 토지 무르기 법칙을 토대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원수 마귀에게 빼앗긴 모든 권세를 되찾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

## 1 첫째, 아담의 근족인 사람이어야 한다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열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의 판 것을 무를 것이요” (레위기 25:25)

토지 무르기 법칙에 따르면 돈이 없어 토지를 팔더라도 근족이 대신 물려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담이 원수 마귀에게 넘겨준 권세를 되찾기 위해서는 아담의 근족인 사람이어야 했다(고전 15:21~22; 계 5:1~5; 행 13:22~23).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며(요 1:14), 하나님 아들로서 신성과 인성을 함께 지니신 분이시다. 하지만 우리와 같은 삶과 뼈가 있는 육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 성장 과정을 거치셨다.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한 기원 전 BC와 기원 후 AD.만 보아도 분명한 역사적 사실임을 알 수 있다.

## 2 둘째, 아담의 후예가 아니어야 한다

형제의 빛을 갠 주려면 먼저 자신에게 빛이 없어야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해 주려면 자신에게 죄가 없어야 한다. 하지만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의 죄를 범한 첫 사람 아담의 모든 후손은 부모의 기를 통해 죄의 성질을 이어받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남녀의 결합으로 잉태된 아담의 후예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결코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없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시기에 어떠한 죄성도 없을 뿐 아니라 결코 아담의 후예가 아니시다.

## 3 셋째,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

“만일 그것을 무를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요하게 되어 무를 힘이 있거든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레위기 25:26~27)

토지 무르기 법칙에 따르면 팔았던 토지를 다시 무르기 위해서는 그만한 힘이 있어야 한다. 이처럼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도 죄를 무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 영계에서는 죄가 없는 것이 힘이기 때문에 원수 마귀에게 빼앗긴 첫 사람 아담의 권세를 회복하려면 무엇보다 죄가 없어야 한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기에 사람의 기를 통해 물려받

은 원죄가 없으시고, 어릴 적부터 율법을 온전히 준행하고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기에 온전한 분이시다. 또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받고(눅 2:21), 33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어떠한 자범죄도 짓지 않고 오직 하나님 뜻에 순종 하셨다(벧전 2:22~24; 히 7:26). 따라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원수 마귀를 이기고, 온 인류를 구원할 힘이 있으시다.

## 4 넷째,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

비록 토지 무를 힘이 있는 근족이 있다 해도 그에게 사랑이 없으면 되찾아 줄 수 없다. 이처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전히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

예수님은 앞서 설명한 세 가지 조건을 온전히 갖췄을 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영적 사랑을 지니고 계셨다. 인류의 죄를 대속한다는 것은 죄인 된 인류가 받아야 할 사망의 형벌을 대신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롬 5:7-8). 예수님 외에는 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전혀 없으므로 다른 이로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다(행 4:12).

모든 사람이 이러한 사랑을 깨달아 신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얻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항상 승리하는 복된 삶을 영위하기 바란다.

<p><b>GCN 방송</b> www.gcntv.org</p> <p>2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주요 프로그램 안내</p> <p>▶ 2014.2.2~2.8</p> <p>February</p>	<p><b>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령의 음성주관인도 10-14</li> <li>성령의 9가지 열매 4-8</li> <li>믿음의 분량 5-9</li> <li>창세기 강해 46-50</li> <li>헛되고 헛되니 1-3</li> <li>하나님을 만나려면 1-2</li> <li>우리 삶의 등불 4-5</li> </ul>	<p><b>GCN TV 설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축복권과 저주권 3(이수진 목사)</li> <li>마음의 향(이미영 목사)</li> <li>영의 세계 9(이희선 목사)</li> <li>생명수 1(신동초 목사)</li> <li>MIS강의 1(정구영 목사)</li> <li>영원한 것을 위하여 (한주경 찬양선교사)</li> <li>온전한 신뢰(김지애 교육전도사)</li> </ul>	<p><b>예능 프로그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14</li> <li>찬양드려요 13-14</li> <li>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13-14</li> <li>항기 13-14 English 7</li> <li>플로리스트 13-14</li> <li>아름다운 예배 7</li> <li>찬양과 경배(3) 70-76</li> </ul>	<p><b>해외성회 프로그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독일연합대성회 2</li> <li>회상 1-2</li> </ul> <p>위성, 인터넷, 인터넷TV방송 A/S 문의</p> <p><b>1577-2073</b></p>
--	---	---	--	--

# “태아의 성별이 바뀌었어요”



우리 교회는 1982년 개척 이래 기사와 표적, 권능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나타나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성경이 참임을 확증하고 있다. 그 가운데 태아의 성별이 바뀐 많은 사례는 성도들에게 큰 믿음을 심어 준다. 이는 이미 아들이나 딸로 형성된 태아가 하나님 공의에 합당하게 성별이 바뀌는 재창조의 역사 중 하나이다. '재창조의 역사'란 '이미 창조된 것을 바꾸거나 새롭게 만들어 가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나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멈추는 권능을 끌어내린 일들이다. 이러한 '재창조의 역사'는 오늘날도 하나님의 공의를 어그러뜨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능하기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막 9:23).

김은숙31 권사 (3대대 32교구, 45세)

## “병원에서는 딸이라 했지만 아들을 낳았어요”



1998년 3월, 친구 최문희 권사의 전도로 우리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해 2월, 첫아이를 출산했는데 딸이었지요. 그 후 저는 아들을 낳고 싶어서 2000년 신년 기도제목 중 하나를 아들 출산으로 정했습니다. 그해 임신 5개월쯤 됐을 때 임신 중인 여동생과 함께 유명하다는 한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진맥과 초음파 검사 결과, 둘 다 딸이었지요.

동생과 저는 아들을 간절히 원했기에 병원에 가서 다시 초음파 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로 딸이었지요. 저는 교구나 선교회에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만남이 있을 때마다 아들 출산을 위해 기도받았습니다. 당회장님의 기도로 아니 될 것도 되는 놀라운 기사와 표적, 권능의 역사를 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2001년 5월 4일, 하나님께서는 당회장님의 기도를 통해 제게도 역사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리도 원했던 아들을 출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매우 감격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님도 아주 기뻐하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연신 외치셨지요.

그런데 함께 검진받았던 동생은 의사 선생님의 말대로 딸을 출산했습니다. 이를 통해 병원과 한의원의 오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임을 더욱 확증할 수 있었지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운 바를 믿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당회장님의 권능을 통해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에 매우 감사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자녀들에게 좋은 것만 주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태어난 아들 진성이(사진 가운데)는 벌써 열네 살이 됐으며, 성실하고 착하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공부도 알아서 잘하고, TV 시청이나 오락을 취하지 않으며, 부모 말에도 순종하고 매일 기도하는 착한 아들이지요.

이처럼 귀한 아들을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김서현 자매 (2대대 10교구, 12세)

## “엄마 배 속에서 아들이었던 제가 딸이 됐대요”



아릴 적부터 엄마는 제게 아들로 태어날 뻔했지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로 딸이 됐다고 종종 말씀해 주셨어요. 처음에 들었을 때에는 동화 속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픈 사람들이 당회장님 기도를 받고 치료받은 사례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죠.

엄마는 오빠를 낳고 저를 아주 어렵게 가지셨대요. 여러 번 유산의 위험이 있었지만 설교 후 단에서 해 주시는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고 무사하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저 아들이든 딸이든 건강하기만을 바라셨는데, 임신 5개월 안정기에 접어들자 첫아이가 아들이니 기왕이면 딸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셨대요. 그런데 엄마의 바람과는 달리 의사 선생님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자 엄마는 못내 아쉬우셨다고 해요.

어느 날, 반가운 소식이 들렸는데 당회장님 기도로 딸이 아들로 바뀌었다는 간증이 있다고 해요. 또 아이를 가질 계획이 없었던 엄마는 '나도 당회장님께 기도받으면 딸을 낳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매주 설교 후 해 주시는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셨대요.

그 뒤 엄마는 임신 6개월 때 초음파 검사를 받은 후 의사 선생님께서 조심스럽게 물으셨다고 해요. “선생님, 뭐예요?” 의사 선생님은 전과는 달리 “엄마와 비슷하네요.”라고 말씀하셨대요. 임신 7개월째 초음파 검사 결과 역시 딸이 확실하다고 하셨대요. 엄마는 기도 응답받아 너무 기쁘셨다고 해요.

2003년 8월 8일,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학교에서 학급회장, 교회에서는 반장으로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어요. 제 꿈은 의사예요.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고, WCDN(세계기독교사네트워크)을 통해 당회장님 권능의 기도를 통한 치료 사례를 전 세계에 전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 국내 지교회, 지정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동명동 168(부암동) ☎070-8223-4191~4, 010-9818-983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2동 109번지 복성 B/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444-5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서구 지평동 1181 온천초등학교 정문 앞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동천동 177 시청 강 건너편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지평동 1181 온천초등학교 정문 앞 ☎062372-1002, 010-3771-7970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167-4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정리 391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흥동 564-15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만민교회 충북 괴룡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 1동 173-11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956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700번지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 2동 626-1 ☎055247-8891~2, 010-5527-2073

- 말양만민교회 경남 말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301-5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12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965-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 2동 520-20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98-1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해동 765-2번지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산 153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16-14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 2가 929-1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 2길 제3동 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나운동 798-7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2-(순환대로 637)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12-4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노형동 2775-1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26-3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508-1 ☎031485-9143, 010-5583-4697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0-7127-2073
- 광명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천동 698-12 ☎032569-3835, 010-3430-3312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7-4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52-3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길 1동 348-5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3 ☎032528-3830, 010-3430-331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031202-8480, 010-7127-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465-4 ☎031635-9103, 010-7103-4097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65-1 ☎031840-2906, 010-8163-1537